

『제3차 세계 리셋』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yhlee@cerik.re.kr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 김민주 · 송희령 옮김/ 비즈니스맵

『제3차 세계 리셋』의 원제(原題)는 ‘The Great Reset’이다. 여기에서 리셋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시스템을 재부팅해 수행하던 작업을 중단시키고 컴퓨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경제는 위기를 겪으면 스스로 리셋하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축으로 촉발된 경기 불황 이후 경제가 미국 국민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영문 제목 ‘그레이트 리셋’이란 경제와 사회 질서가 근본적이고 대대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사회의 창조적 계급을 잘 끌어들이는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주창하였다. 플로리다 교수는 창조적 계급과 도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글로벌 트렌드, 경제학, 번영, 경쟁력과 성장이란 주제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연설가다. 현재 마틴번영연구소 소장이자 토론토대 로트만 경영대

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08년 이후 경기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제3차 세계 리셋』을 출판하였다.

저자는 GE의 CEO 제프리 이멜트(Jeffrey Immelt)가 말한 “이 경제 위기는 주기적인 것이 아니다. 이 위기는 리셋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우리 사회, 우리 경제에 과거와 전혀 다른 변화가 필요한 리셋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문장에 착안하여, 현재 미국 경제 위기를 ‘그레이트 리셋(The Great Reset)’으로 정의하였다. 2008년 이후 미국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필요한 그레이트 리셋은 1870년대 장기적 불황과 1930년대 경제 대공황에 이은 제3차 리셋이라고 명명하였다. 저자는 그레이트 리셋이란 경제와 사회 질서가 근본적이고 대대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경제나 금융 분야에 단순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우리 생활과 생산 방법이 약간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변혁되는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 혁신은 새로운 인프라와 교통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새로운 주거 패턴이 생겨나고, 우리가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과거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욕구, 새로운 필요, 새로운 소비 모델이 형성된다. 이는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 생산성 향상과 더 나은 일자리 만들기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1차 리셋은 1870년대 장

기적 불황으로 인해 유발되었다. 1873년 경제 위기의 모습은 2008년 이후 미국 경기 침체 국면과 유사하다. 상환되지 않은 모기지과 복잡한 금융 상품으로 금융 위기가 촉발되고, 이러한 금융 위기는 미국 전역으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미국 경제 전체가 패닉상태가 빠져 들었다.

또한,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었고 불황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미국 국민들은 경기 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던 것만큼 큰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경기 위기 속에서 기존 산업 분야를 혁신하여 신종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놀라운 발명품이 개발되었다.

1차 리셋 기간에 이루어진 기술 혁명은 자전거, 증기 터빈, 가스 연소 엔진 등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이 신(新) 에너지 시스템은 대형 선박과 자동차 등의 교통산업을 창출하여 교통혁명을 이룩하였다. 또한, 기술혁명은 장인에 의한 개별 작업 방식을 기계를 사용한 대량 생산 방식으로 바꾸는 생산 조직 및 방식의 혁신도 이끌어냈다.

이러한 1차 리셋의 기반을 제공하는 대규모의 물리적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의 발전도 이루어졌다. 철도, 도시의 수도 및 관개 시설, 전력 등은 물리적 인프라의 한 사례이다.

대량 생산 방식의 공장을 운영할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였던 교육 인프라의 혁신으로 1870년에 6만 3,000명이었던 대학생 수는 1900년에 23만 8,000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공과대학 교육이 강화되었다.

1920년대 말 위험성이 큰 금융 투자 상품과 부동산 투기로 생긴 거품이 1929년 증시 붕괴 사태로 터지면서, 1930년대 경제 대공황기가 시작되었다. 2차 리셋은 이런 경제 대공황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2차 리셋 기간의 기술 혁신은 기계의 발전과 현대적 조립 라인 도입을 통한 '포드식 대량 생산'이라는 새롭고 강력한 생산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생산 시스템에 양호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교육 인프라는 질적 및 양적으로 확충되

었다. 고등학교 졸업생 비율이 20%(1920년)에서 50%(1950년)로 급증한 사실이 하나의 예이다. 또한, 2차 리셋은 주택 보유율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교외 개발로 인한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건설 붐을 통해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도 2차 리셋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제3차 리셋은 아이디어 중심의 경제로 전환될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전환 시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창조적이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도시의 교외 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대도시권(metropolitan) 현상은 3차 리셋 기간 동안에는 거대 지역(mega-regions) 현상으로 바뀔 것이다. 즉, 여러 도시, 여러 주, 여러 지방, 심지어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될 거대 지역은 경제를 새롭게 하고 더 큰 규모로 움직이게 할 것이다. 저자는 3차 리셋 기간의 특징의 하나로 '이동성'을 들었다.

따라서, 3차 리셋을 통해 사람, 상품, 아이디어의 이동 속도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 인프라는 국민 전체의 타고난 재능을 계발하고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학습법과 인간 내면 개발 방법을 구현될 수 있도록 혁신되어야 한다.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경기 위기를 벗어나 경제 회복으로 가는 길은 매우 멀고도 험난하고, 30년 동안의 발전을 보장받으려면 적어도 2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1·2차 리셋을 되돌아보면서, "대규모 경제 위기가 초래될 때마다 경제는 대변신하였고, 그 변신을 기초로 경제가 회복되어 발전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저성장의 뒷에 빠져 새로운 경제 성장 패러다임 도출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리셋 기간 동안 교육 인프라의 혁신과 더불어 도시·교통시설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infrastructure)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저자의 견해를 경청해봐야 하지 않을까. **END**